이명박 '경선룰' 여론조사 조항 양보

중재안 파행 일단락…위기 넘긴 한나라

오늘 '강재섭 중재안' 수정 통과될 듯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경선 중재안을 둘러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 내홍 사태가 이 전 시장의 '여론조사 하한선 보장' 조항 전격 양보로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이 전 시장의 발표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은 환영의 뜻을 밝혀 중재안은 15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나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전도 예정대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시내 안국포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재섭 5선 의원이 사퇴를 걸고 중재안을 내놓은 것을 받았으나 당이 계속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투표율 하한선 보장비율) '67%'를 조건없이 양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은 "저는 이 시점에서 저만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승리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결심했다"며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당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아름다운 경선을 이룰 수 있고 그 경선을 통해 오는 12월 19일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저는 당을 구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양보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약속과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잘 판단하셨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측근인 김무성 의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자. 그래서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3번 조항이 삭제된 '강재섭 중재안'은 15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상정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보선 이후 20일간 지루하게 전개돼온 한나라당 내홍 사태는 일단 수습국면에 들어서면서 향후 경선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강 대표 중재안의 내용은 기존의 '8월-20만명' 경준위 안에서 ▲선거인단 수를 유권자 총수의 0.5%인 23만1천652명 규모로 확대하고 ▲투표소를 시·군·구 단위로 늘리면서 순회경선 대신 하루 동시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을 올리며 ▲여론조사 반영비율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율이 3분의2(67%)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3분의 2로 간주하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가중치 산정에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전국위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양측은 중재안을 수용하거나 타협점을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중립을 자처하는 12명의 의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선거인 사전등록제'를 들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이 이를 거부해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이날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승적 양보 방침을 밝힘으로써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내분은 일단 봉합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룰의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하한선 보장 조항을 양보한다고 밝히자 배석했던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도 너무한 자치단체 단체협상 내용

일부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상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단체협상이 지나치게 복리후생 부문을 확대하는 데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복리후생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노조의 기본적인 특성과 직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민선 지자체장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대학(원) 다니면 '수업 휴가' 보장

성희롱 받았을땐 최장 2개월 병가

◇**직원 사망시 가족 우선 채용**=이 조항의 내용은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명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영광군과 함평군뿐 아니라 서울 동대문구, 전북 군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 단협에 들어갔다.

하지만 동료들이 재난으로 숨졌을 경우에 가족들을 돕고자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공무원 취업을 조건으로 보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당직은 집에서 서고 감사는 줄여라**=보성군은 '읍면의 일요일 일직은 재택근무로 한다'고 단협에 명시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 완주군은 '군은 직속기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에 대해 군 감사를 폐지하고 수시감사로 대체한다'고 단협에 규정하는 등 상당수의 지자체 단협들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혼 직원들 '미팅' 주선**=서울 중랑구는 '미혼 직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해 만남의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단협에 명시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부부 공무원의 동일 사무소 비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공무원 부부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명목의 휴가 확대**=전북 완주군은 '경조사, 출산, 보건, 유산·사산, 육아, 수업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일수를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단협에 명시했다. 이중 '수업 휴가'는 대학(원) 등에 다니느라 연월차 휴가 등을 모두 소진한 뒤 모자라면 수업 휴가를 허용한다는 것이 완주군청의 설명이지만 민간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휴가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5일 이내 재해구호 활동 휴가를 인정했다. 일부 공기업은 올초에 이런 봉사활동 휴가의 시행계획을 내놔 비난을 받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희롱을 받았을 경우에 병가(최장 2개월)를 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면 되지 이를 위한 휴가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해외 연수·여행 확대**=전북 완주군은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활동 중심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부서별 업무 유공자, 중앙·도·군의 시책 추진자, 장기재직자' 등이 해외연수에 우선한다고 단체협약에 설명, 보상의 성격이 강함을 보여줬다.

함평군은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 확보로 다수의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단체협약으로 약속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親盧 '참평 포럼' 정치 세력화?

김근태·정동영 해체 요구 불구 지역조직 구성 착수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친노(親盧) 핵심 인사들이 결성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전국 조직화에 시동을 걸면서 정치권 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정동영 두 전직 의장이 포럼을 '열린우리당 사수진지'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포럼 측은 이 같은 비판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조직 구성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포럼은 8~9일 대전·충남지역 평가포럼 준비위 및 발기인 모임을 가진데 이어 오는 26일 대전·충남포럼 발대식을 갖고 지역조직 작업에 나선다. 대전·충남포럼 공동대표단에는 안희정씨와 나소열 서천군수, 조규선 전 서산시장, 2002년 대선 당시 노 후보의 청양·홍성지역 선대위원장이었던 고광성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등이 추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은 이에 앞서 오는 19~20일 충남 천안시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안희정, 김만수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386 참모들과 이병완 전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조직 구성 문제 등을 토론하고, 참여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다.

이와 관련, 김만수 참평포럼 공동집행위원장은 "능동적으로 지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같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자발적인 지역모임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는 차원"이라며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 전남, 부산 지역에서 모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포럼이 지역조직 결성에 착수하자 친노세력이 정치세력화는 물론 대선 이후 친노 정당조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리당 내 비판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 전 의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 대통령 퇴임 이후를 노린 정치조직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럼 측과 우리당 내 친노성향 의원들은 정치세력화가 아니며 포럼을 정치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구태의연한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석 3개월 문화수도 추진단장 내달 임명

문광부 25일~31일까지 공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선정이 무려 3개월이나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다음달 최종 임명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추진단장의 임용 직위는 개방형 직위에 고위공무원 나급이며 임용기간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에 재임용이 가능하다.

지난 2월 말 이영진 단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선정 문제는 이에 따라 무려 3개월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지역 문화계에서 특정 인사를 추진단장으로 밀면서 경쟁전이 가열, 오히려 선정 작업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가에서는 광주지역 모 의원이 특정 인사를 추진단장으로 밀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3월이나 4월께 계약직으로 추진단장을 임명하고 추후 직제령이 개정된 이후 공모 절차를 거치려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사 밀어주기 등 정치적 알력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좋은사람, 좋은여행-
참좋은여행
www.verygoodtour.com
일반여행업 등록 685호 / 롯데백화점 광주점 건너편
대표번호 1588-7557
광 주 점 062)515-7600
거품없는 가격만족! 품질만족!
꿈꾸던 여행이 시작됩니다.(단체문의 환영)

광주출발
봄의향기 가득한 제주도 여행
가족을 위한 주말 1박2일 (토/일요일 출발) 일반호텔 합숙기준 ₩199,000
[주중]2박3일 정기관광 (월/화/수/목요일 출발) 일반호텔 합숙기준 ₩159,000
직장인을 위한 주말2박3일 (금/토요일 출발) 일반호텔 합숙기준 ₩219,000 / ₩189,000
※관광호텔 2인1실 기준시 2만원이 인상됩니다

천하절경! 장가계특집 광주↔장사
6월 16일부터 ▶ 수/토요일 출발
장사/장가계 4일 ₩549,000 ▶매주 수요일 출발
장사/장가계/황석채/상덕 5일 ₩599,000 ▶매주 토요일 출발
장사/장가계/천문산/상덕 5일 ₩629,000 ▶매주 토요일 출발
※불포함사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민족의 성지 백두산으로! 광주↔심양
고구려문화 유적지탐방 4일 ₩539,000▶매주 금요일출발
심양/백두산 4일 ₩679,000 ▶매주 금요일출발
심양/단동/백두산 5일 ₩729,000 ▶매주 월요일출발
※불포함사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광주출발 [노팁!]중국/일본/동남아
상해/장가계/항주 5일 ₩789,000 ▶6/2,9,16,23 7/7
상해/항주/주가각/소주 4일 ₩399,000 ▶6/13,20 7/4,11
상해/황산/항주/주가각 5일 ₩625,000 ▶6/2,9,16,23 7/7
[문화탐방]일본 큐슈크루즈 4일 통나무콘도 ₩279,000 ▶6/3,5,8
통나무콘도와 전통온천호텔 큐슈크루즈 4일 ₩299,000 ▶6/1,7
팬스타와 함께하는 오사카/나라/교토 5일 ₩469,000 ▶6/7
싱가폴/바탐/조호바루 5일 ₩629,000 ▶5/30 확정

딱강추천! 떠나요!! 여름 바캉스 상품 모음
[노팁!]방콕/파타야/로얄드래곤 5일 ₩549,000 ▶7/24,25,26,27,㉘㉙㉚ 8/①②
[실속!]푸켓/팡아만/산호섬+전통안마 5/6일 ₩749,000 ▶7/21,22,24,25㉖㉘~
[실속!]세부+호핑투어 5/6일 ₩799,000 ▶7/22,26,㉙ 8/2
[버스이동]성도+낙산대불/구채구+황룡 5/6일 ₩799,000/₩849,000 ▶7/26 8/2
[실속특가!]동경/닛코/후쿠시마온천 4일 ₩699,000 ▶7/24,25,28,29,31 8/1
[오감만족!]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 ▶7/21,25,28 8/1
환상의피지요트크루즈+호주/뉴질랜드남북섬 13일 ₩2,290,000 ▶7/19,26 8/2
[찬스특가!]스페인/포루투칼/모로코(KL/LH) 11일 ₩2,590,000 ▶7/24,31
[노팁!노옵션!]동유럽5개국 9일 ₩2,590,000 ▶7/23,24,26㉘,30,31
[노팁!노옵션!]융프라우+나,폼,소+서유럽6개국 12일 ₩3,490,000 ▶7/23,26,30 8/2
[AC연합]캐나다 완전일주(실속) 8일 ₩2,690,000 ▶7/23,30

중국/일본
[실속!]북경/만리장성/용경협뱃놀이 4일 ₩249,000 ▶5/20,21,㉓
(버스이동)성도+낙산대불/구채구+황룡 5일 ₩649,000 ▶5/21,28 6/4,11,18,25
계림/장가계+원가계/서안 5일 ₩799,000 ▶5/23 6/6
곤명/석림/구향동굴 5일 ₩599,000 ▶5/24
(관서일주)오사카/나라/교토+벳부온천 4일 ₩599,000 ▶ 5/30 6/6,7,13,14

유럽
[노팁!노옵션!] 체스키크롬로프/프라하야경+동유럽5개국 9일 ₩2,190,000 ▶5/17,22,28
[노팁!노옵션!] 서유럽6개국(동반자30만원할인) 12일 ₩2,990,000 ▶5/17,21,28 6/4,7,11
[노팁!노옵션!] 터어키완전일주 8/9일 ₩1,790,000 ▶5/20,22,29
[찬스!] 터키일주+그리스 10일 ₩1,590,000 ▶5/24,31 6/7,14,21

미주/대양주
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와이토모 10일 ₩1,490,000 ▶5/22,26,30 6/1,2,6,9,16,20,23,27
타우포송어낚시-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 11일 ₩1,490,000 ▶5/23,30 6/6,13,20,27
[NZ에어텔]뉴질랜드 자유여행(항공+호텔) ₩1,030,000 ▶매일출발 ▶호텔3박숙박권/국내선구간 무료/1개월항공권
여걸6촬영지!사이판 월드리조트+BBQ+마나가하섬 5/6일 ₩699,000/₩829,000
미동부+캐나다+퀘백+우드버리아울렛 10일 ₩1,990,000 ▶5/22 6/8,12,19
미서부일주+미동부일주/우드버리아울렛 12/16일 ₩2,390,000 ▶5/25 6/1,8,15,22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주관:참좋은여행(주) • 서울시 중구 서서문동 21-1 효성빌딩 11층 • TEL:(02)595-7000(代)/FAX:(02)599-4555 •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 • 교통편:항공 및 전용버스/전지역 • ○날짜 요금인상 • 추가 경비 없음(단 개인적인 팁,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 공통여행조건:여행경비 1인기준(공항세, 출국세 포함/별도 표지역 외 1급 호텔 이용, 개인팁 1일-US10$/¥1,000/10유로를 권장합니다 식사포함, 최소 출발인원:10~15명, 해외 여행자 보험